

##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height) 프리미엄 :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호중\* · 김정옥\*\*

### 초 록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으로 육체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키=생산성’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을 둘러싼 일자리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외모나 키와 같은 요인들도 타인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때로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줄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키가 일종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가능성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 그리고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작은 키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큰 키에 대한 프리미엄의 형태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시장에서의 신장(height)의 영향력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 첫 일자리 소득, 노동시장 이행, 한국교육고용패널

\* 제1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baseball@kwidimail.re.kr)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lassicus323@naver.com)

## I. 서론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외모지상주의(lookism)의 심화 속에서 키(height)도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때로는 허리나 무릎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이힐, 키높이 신발 등을 통해 큰 키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키 클리닉’으로 대변되는 ‘키 성장 산업’의 성장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큰 키에 대한 강한 열망은 이방인의 눈에 한국적 맥락의 특이한 신드롬(syndrome)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하였다(New York Times, 2009; ABC News, 2009; 박소연, 2011에서 재인용).

‘하이티즘(heightism)’이라는 용어(Feldman, 1975)로 대표되는 키에 대한 차별이나 선호가 우리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키’조차도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키는 다른 외모 범주인 ‘체중’, ‘쌍꺼풀’, ‘콧대’, ‘주름’, ‘근육’ 등과는 차별되게 시각적으로 개인을 즉각 서열화하는 독특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기도 하며(박소연, 2011), 때로는 키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넘어 이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개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미진 외, 2004; 허경·박미정, 2009; 오진아 2011).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상당수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키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며(박기성·이인재, 2010; Salska et al., 2008; Yancey & Emerson, 2014; Stulp & Barrett, 2014), 키가 우울이나 자존감 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김미진 외, 2004; 정민자·윤경림·심계식, 2008; 허경·박미정, 2009).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학교에서의 공부 또는 직업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소위 ‘스펙 쌓기’로 불리는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경험, 봉사활동과 같은 교외활동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모나 키와 같은 요인들도 타인과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때로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줄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각종

포털사이트의 취업관련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키와 취업 간의 유/불리’를 묻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키는 또 하나의 ‘스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으로 육체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키=생산성’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청년층 신규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키는 여전히 갖춰야 할 육체 자본이자 ‘스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소연, 2011).

키, 몸무게, 반점 등을 비롯한 신체조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자격요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지원자들에게 키와 몸무게 같은 정보들까지도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박귀천 외, 2015). 이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상당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히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넘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여성신문, 2017a; 국회뉴스 ON, 2017). 구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직무적합성을 예측할만한 요인들 외에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기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 입직희망자들의 경우 이력서에 채워 넣어야 하는 빈 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직무 중심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와는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재산상태 등을 묻는 이력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시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키’조차도 일종의 경쟁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동갑내기 여학생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직가능성에 키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으로의 취업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 후 입직단계에서의 취업가능성,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에 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취업자를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서도 키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고 공감대 높은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논의: 키와 노동시장 성과

키는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 및 가설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큰 키’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설명할만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우선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양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수준으로 직결되는데(Becker, 1964) 키가 클수록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이 축적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차이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up>1)</sup>. 예컨대 청소년기에 큰 키를

1) 일반적으로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선천적인 재능 및 교육과 훈련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전문기술(skill)을 포괄하는데 인적자본론에서 사용하는 능력개발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전문기술의 연마 및 이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우현·황수경,

가진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내·외 활동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리더십, 대인관계 스킬, 사회적응력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 또한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어릴 때 키가 작은 이들의 경우 낙인경험 등으로 인해 덜 긍정적인 활동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쌓인 인적자본의 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박기성·이인재(2010)는 생산성 증대가설(productivity enhancing hypothesis)로 명명하고, 신장이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과의 연계를 통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임희정, 2012에서 재인용).

이와는 달리 만일 ‘큰 키’ 그 자체를 개인의 타고난 재능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재능 차이(키의 차이)가 개인 간 생산성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는 신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선천적 재능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재능 격차가 생산성 격차를 낳는다고 본다(조우현·황수경, 2016). 때로는 ‘큰 키’가 높은 생산성이나 높은 생산성과 연결되는 건강함 또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성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선발비용을 줄이고자 ‘큰 키’를 잣대의 하나로 삼아 채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여성신문, 2017b; 헤럴드경제, 2017; 채널 A, 2017).

직종선택가설(Occupational choice hypothesis)을 통해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직종에 따라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특정 직종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체조건(신장 등)이 채용과정, 생산성 결정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채용 및 임금 등의 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신체조건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기성·이인재, 2010).

---

2016). 따라서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키의 경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얻은 인적자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체적 특징(예컨대 키)이 인적자본축적 과정에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생산성은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기될 수 있다(임희정, 2012).

앞서 살펴본 개인의 차이를 초점으로 한 이론 외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차별이론을 통해서도 신장 프리미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베커 Becker(1957)의 선호차별이론(Taste-Based Discrimination theory)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별 등이 생기는 이유를 고용주나 소비자의 편견(prejudice) 또는 선호(taste)에서 찾고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신장 프리미엄은 생산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준의 키에 대한 고용주나 소비자의 선호 또는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rrow(1972), Phelps(1972) 등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인한 차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짚어볼 수도 있다. 통계적 차별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보상수준이 결정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성별, 학력, 연령 등과 같이 관찰이 용이한 그룹특성에 기대어 채용, 임금, 승진 등의 결정을 하고,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나 선호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룹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는 통계적 차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유경준·황수경, 2005). 이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나 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키가 큰 근로자 집단의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키가 큰 개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transition school to work)하게 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대부분 생애 첫 일자리로서 초기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향후 경력개발이나 이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자리에 비해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안준기·배호중, 2011). 청년층을 둘러싼 일자리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양호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나타내는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어떠한 특성이나 노력들이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유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쌓기 경쟁이 일어나기도 한다(채창균·김태기, 2009).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는 크게 객관적-양적 성과로서 취업 여부, 미취업기간 탈출 확률, 취업 이행 시간 등을, 객관적-질적 성과는 임금, 승진, 직업지위, 정규직 여부, 대규모 업체 정규직 여부로, 주관적-질적 성과로는 직무만족도, 교육수준일치 취업, 기술수준일치 취업, 전공일치 취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윤수경·한유경, 2014). 이 같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성과(취업성과)는 해당 개인의 축적된 인적자본 정도뿐만 아니라 가정배경 등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입시와 관련해 대학입학시험성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안국, 2006; 오호영·김승보·정재호, 2006; 김홍균·문혜영, 2007; 김희삼, 2010), 졸업한 고등학교의 계열 또한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채창균, 2004; 남기곤, 2005).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 또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양호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황여정·백병부, 2008;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0; 우광호·안준기·황성수, 2010; 박환보, 2011; 변금선, 2015).

이와 함께 대학특성이나 재학 중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경험들도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대학의 지명도나 소재지(채구목, 2007; 김희삼·이삼호, 2007; 김진영, 2007; 오호영, 2007;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0; 박환보, 2011), 전공(채구목, 2007; 박가열·천영민, 2009; 윤수경·한유경, 2014)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외연수경험

(박천수, 2009; 안준기, 2009; 남기곤·윤진호·이시균, 2010)이나 재학 중 근로 경험(Häkkinen, 2006; 이병희, 2003; 박성재·반정호, 2006; 남기곤·윤진호·이시균, 2010; 김성훈, 2011; 안준기·배호중, 2011) 등이 졸업 후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선행연구

이론적 논의에 이어 여기서는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신장 프리미엄을 둘러싼 국내의 실증연구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국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자살률, 혼인 등에 있어 신장 프리미엄과 관련해 다양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Herpin, 2008). 여기서는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Kortt & Leigh(2010)는 2006년 및 2007년 HILDA(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자료를 이용하여 25~54세 임금근로자의 키와 시간당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키가 10cm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가적인 교육 1/3년(또는 경력 4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키가 10cm 증가할수록 시급에 있어 3%가량의 프리미엄이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적인 교육 1/2년(또는 경력 2년)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에 맞먹는 수준의 크기였다.

Case & Paxson(2008)은 키와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키가 큰 사람들의 높은 인지능력이 그들의 임금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큰 키 → 높은 인지능력 → 고임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들은 영국(1958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및 1970 British Cohort Study)과 미국(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LSY79) 및 Fragile Families data)의 자료를 이용하여 키가 인지능력,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인 임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기에 키가 큰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기에 키가 클수록 시험성적이 높았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에 키가 클수록 시간당 임금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 ‘키→인지능력→임금’으로 이어지는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Persico, Postlewaite, & Silverman(2004)은 영국(NCDS)과 미국(NLSY 79)의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자 백인남성표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령대(영국의 경우 31세, 미국의 경우 30대 표본)를 추려내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배경이나 건강상태, 지능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는데 키가 1인치 클수록 각각 2.2%(영국)와 1.8%(미국) 가량 임금이 높았다.

Herpin(2005)은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의 2001년 조사자료를 이용해 장신(=평균신장+1표준편차 초과), 평균신장(=평균신장±1표준편차), 단신(=평균신장-1표준편차 미만) 여부에 따른 직업, 혼인가능성, 직업의 위세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장이 클수록 관리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단신의 경우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장신 집단에 속할 경우 이전 직업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의 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키가 클 경우 학력수준이 높았으며 혼인의 가능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평균신장 키를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 등은 낮게 나타났으며(Deaton & Arora, 2009), 키가 큰 사람들이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Nettle, 2002). 이와 함께 키가 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이미지(건강함, 지적임, 리더십이 있음 등)로 비춰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Blaker et al., 2013).

이와 같은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며 최근에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과 관련한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박기성·이인재(2010)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해 30~40대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시간당 임금)에 있어서의 신장 프리미엄의 존재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키와 임금의 관계에 대해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키가 가족 특성(family background) 또는 건강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김용민·임희정·박기성(2012)의 연구 또한 한국노동패널(KLIPS) 11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해 30~40대 남녀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의 존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배경, 건강, 직종, 교육을 통제하면 30~40대 남성은 신장이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0% 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이 가족배경,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대리변수 가설 및 신장이 개인의 직종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직종선택가설 또한 채택되지 않았다.

김용민·김용학·박기성(2012)은 2001년~2004년 사이의 한 결혼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급여소득자들의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신장과 외모의 프리미엄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키가 1cm 커짐에 따라 남자는 0.25% 씩, 여자는 0.38% 씩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 결과 신장 프리미엄이 인적자본 효과 보다는 차별 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현국(2014)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자료를 이용해 그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급임원을 경험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개인고정효과(FE) 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키가 큰 학생이 학급임원이 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에 대해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키가 클수록 학급에서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의 경우 특정집단 또는 특정 지역 등으로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표본(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노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축적된 인적자본 차이에 따른 효과와 신장 프리미엄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동일한 연령의 신규 입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Ⅲ. 이용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 1. 이용자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에 따른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KEEP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노동시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시작되었는데,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씩 총 6,000명을 추출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1차(2014)년도 자료까지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 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본 연구에서는 2004년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질적인 대학특성 차이에 따른 편의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에 따라 많은 이들이 11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대학에 재학 중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 남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분석은 오히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4년제 대학입학~졸업~노동시장 이행’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sup>2)</sup>.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501명의 여학생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 2. 변수 구성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학졸업 후 입직단계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가능성과 관련해서는 ① 대학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 ②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를 설정하였고, 취업자를 대상으로는 ③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sup>3)</sup>. 분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졸업 후 첫 일자리’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 
- 2) 남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해 대학 재학기간 등에 차이가 생기고 대학 입학 후 충분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준시점에서는 남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 후의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아 구직을 위한 기간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성별 취업성과에 대한 구조적 차이 또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KEEP 1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남학생 1,460명 중 9.4%에 달하는 137명이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제 재학에 진학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 자명하다. 남성의 상당수가 군입대로 인해 해당 시점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성별 취업성과에서의 구조적 차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 성과지표 이외에도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고용유지, 승진, 임금인상 등 다양한 성과지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시장에서의 축적된 인적자본이 차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입직단계에서의 성과에 대한 변수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이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도 한다. 재학 중 경험하는 일자리는 졸업 후 얻고자하는 일자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와 졸업 후 갖게 되는 일자리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설정하고 해당 일자리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졸업을 목전에 둔 상황(예컨대 4학년 2학기)에서는 아르바이트 보다는 졸업에 집중하고, 졸업자 신분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고자 계획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졸업일의 5개월 이전(=마지막 학기 시작 이후)을 기준일로 삼아 기준일 이후 시작된 최초의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설정하였다. 해당 일자리의 시작날짜와 대학졸업일 간의 시점 비교를 통해 졸업당시 취업여부를 살폈으며, 황여정·백병부(2008), 백병부·유백산(2011), 이필남·김경년(201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300인 이상의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질화한 소득에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첫 일자리를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에서의 소득을 월(月) 기준으로 실질화하였으며, ‘괜찮은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장(height)을 다각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자주 언급되는 가구특성 및 대학특성,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활동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으로 삼은 신장(height)은 기본적으로 cm 단위로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대학졸업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신장(응답자의 교육정도가 ‘대학 재학 중’에서 ‘대학졸업’으로 변한 직전년도 자료, 해당 시점이 결측일 경우 이전년도 자료)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장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단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상대적 신장 변수의

경우 Heineck(2005) 및 Herpin(2005)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들은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큰 경우를 ‘상대적 장신’으로, 표본의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작은 경우를 ‘상대적 단신’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함께 ‘평균신장 $\pm$ 1표준편차’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평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상대적 장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단신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신장을 나누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표본들의 평균신장(=161.86cm)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평균 이하 신장을 구분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흔히 언급되는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가족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단위로 측정된 부모의 교육수준(연단위로 측정된 부모의 교육수준 평균)과 형제자매 유무, 고교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자가주택 보유여부, 가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출신지의 대리변수로 고교소재지를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출신고교의 특성(인문계/전문계)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대학입학 시 재수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이에 졸업한 대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된 대학등급<sup>4)</sup>과 함께 7가지 범주의 전공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대학생들은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고자 대학 재학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이 같은 활동들 또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는데 그 중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경험, 재학 중 근로 경험 변수를 활용하였다.

4) KEEP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제공되어 대학입학성적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살펴볼 수 있어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결측이 많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http://univ.joongang.co.kr/>)를 통해 ①1~10위권, ②11~20위권, ③20~30위권, ④기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대학을 구분하였으며 세부전공이 의학, 치의학, 한의예인 경우 1~10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3. 기초통계분석

#### 1) 키와 관련한 기초통계 분석

여기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 신장에 대해서 실제 계측자료를 통해 얻어진 유사한 연령대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KEEP 고3 코호트 이용)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키에 따른 취업성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KEEP을 통한 자기기입(self-reported) 신장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공신력 있는 또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람의 키는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유전적 영향 등)에 뿐만 아니라 시대나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국민들의 인체치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실측자료인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2015)의 「인체치수조사 보고서」와 질병관리본부 외(2007)의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결과를 준거로 삼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이용한 신장 변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 DB를 구축하고 한국인이 쓰기에 편리한 제품개발과 생활공간 디자인에 인체표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9년 1차 측정부터 2015년 7차 측정까지의 5~7년 주기로 한국인의 인체치수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2015).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1965년부터 2005년까지 매 10년마다 신체계측조사를 실시(2005년의 경우 전국 15만 명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계측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를 새롭게 제정하였다(질병관리본부 외, 2007). 두 조사 모두 가용한 최신 자료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의 경우 만18.5세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해당 연령이 성장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며, 대졸자의 신장과 비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비교에 활용하였다. 각 자료를 통한 신장 관련 몇 가지 기술통계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1&gt; 신장(height)에 관한 각종 통계

		N	평균	표준편차	Percentile		
					25	50	75
본 연구(=대학 졸업당시 신장)		501	161.86	4.90	158.80	162.00	165.00
국가기술표준원(2015)	20~24세	362	160.92	5.22	157.45	161.10	164.45
	25~29세	306	160.84	4.89	157.25	160.55	164.30
질병관리본부 외(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18.5세	-	160.73 (중위수)	-	157.37	160.73	16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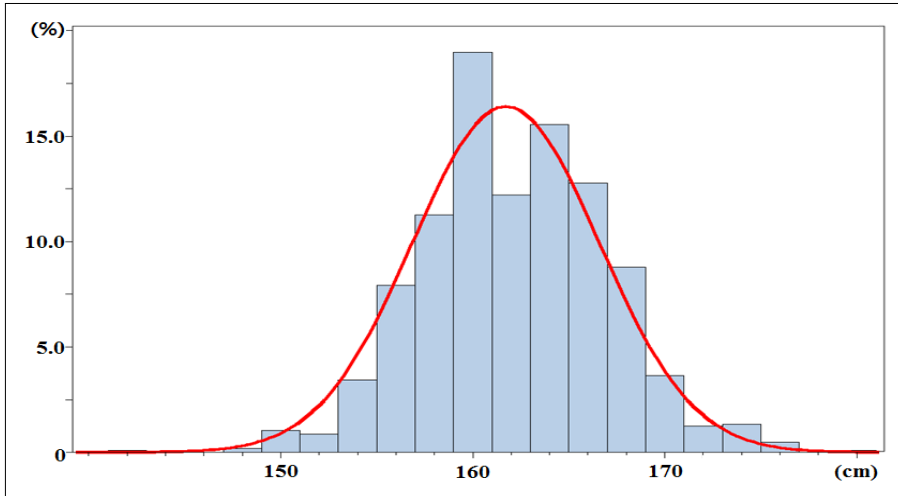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2015).

질병관리본부 외(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해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4년제 대졸 여성의 키는 평균 161.86cm이며 2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중위수)는 각각 158.0cm와 162.0cm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비교를 시도한 수치들을 살펴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2015년 신체 계측을 통한 인체치수결과에서는 20~24세와 25~29세의 평균신장이 각각 160.92cm와 160.84cm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 상에 나타난 18.5세 여성의 신장의 중위값은 160.73cm였으며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수는 각각 157.37cm와 164.20cm였다.

제시된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이용한 키(응답자들이 응답한 키)는 실제 계측을 통해서 얻어진 다른 통계자료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표준편차가 작고, 하위 25백분위수(25 percentile)의 신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응답한 신장의 경우에는 키가 작은 집단에서 실제보다 더 크게 응답하려는 경향이 존재함과 동시에 정확한 계측 수치가 아닌 0 또는 5cm로 끝나는 단위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Charraud & Valdelièvre, 1981; Herpin, 2008에서 재인용).





[그림 1] 분석에 이용한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들의 신장(height)분포

## 2) 분석모형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① 원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 ②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 그리고 ③ 팬참은 일자리 취업 여부(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아 키와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키와 더불어 가족특성, 고교 및 대학특성,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2>에는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41.1%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었으며,<sup>5)</sup> 10.4%는 팬참은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일 당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0년을 기준(2010년=100)으로 실질화한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145.8만원으로 나타났다.

5)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취업한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3%, 6개월로 하였을 때는 65.1%에 달한다.

&lt;표 2&gt;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 기준)

성격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 %, 빈도(명))	
노동시장 성과 (종속변수)	졸업당시 취업여부	졸업당시 취업=1, 미취업=0	41.1%	206
	괜찮은 일자리 취업여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1, 그 외의 일자리 취업 및 미취업=0	10.4%	52
	로그 첫 일자리 소득	ln(첫 일자리 소득)	4.898	0.360
	첫 일자리 소득(만원)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 수준	145.807	107.060
가구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부모학력의 평균(년)	11.935	2.505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있음=1, 그 외=0	94.6%	474
	자가주택 소유여부	고3당시 자가주택 소유=1	74.1%	371
	로그 가구소득	고3당시 ln(가구소득)	5.642	0.522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그 외=0	88.2%	442
	출신고교 유형	인문계고교=1, 그 외=0	81.6%	409
	재수경험	대학입학 당시 재수=1, 그 외=0	15.7%	79
대학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대학순위: 1~10위	5.4%	27
	대학순위: 11~20위	대학순위: 11~20위	6.0%	30
	대학순위: 21~30위	대학순위: 21~30위	10.8%	54
	대학순위: 기타	대학순위: 기타	77.8%	390
	전공1: 인문계열	전공1: 인문계열	15.2%	76
	전공2: 사회계열	전공2: 사회계열	29.7%	149
	전공3: 교육계열	전공3: 교육계열	8.4%	42
	전공4: 자연계열	전공4: 자연계열	16.2%	81
	전공5: 의약계열	전공5: 의약계열	4.0%	20
	전공6: 예체능계열	전공6: 예체능계열	16.6%	83
	전공7: 공학계열	전공7: 공학계열	10.0%	50
	해외연수 경험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있음=1, 경험없음=0	20.0%	100
	재학 중 근로경험	재학 중 근로경험=1, 그 외=0	86.2%	432
	신장(cm)	졸업 당시 신장(cm)	161.856	4.904
신장 관련 변수	평균신장 이상 여부	평균신장 이상=1, 그 외=0	52.7%	264
	상대적 단신	‘평균-1표준편차’ 미만	14.4%	72
	평균신장 범주	평균±1표준편차	70.7%	354
	상대적 장신	‘평균+1표준편차’ 초과	15.0%	75
N	501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 교육 수준은 11.9년으로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다수(94.6%)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교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자 가구의 74.1%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8.2%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6%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5.7%는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특성과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활동을 살펴보면 5.4%는 10위권 내에 속하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계열 전공자(29.7%)가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16.6%)이나 자연계열(16.2%)을 전공한 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대학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이 있었으며,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은 86.2%에 달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height)과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면, 대학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신장은 161.9cm였고, 52.7%는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7%는 ‘평균신장  $\pm$  1표준편차’ 범주에 속하였으며,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작은 경우인 ‘상대적 단신’과 평균신장 보다 1표준편차 이상 큰 ‘상대적 단신’에 속하는 경우는 각각 14.4%와 15.0%로 나타났다.

### 3) 상대적 신장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

여기서는 신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이 속한 신장의 3가지 상대적 범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에는 신장의 상대적 범주에 따라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 단신에 속할 경우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36.1%에 그쳤으며, 평균신장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37.0%가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장신일 경우 졸업일을 기준으로 65.3%는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키가 클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1.38$ ).

<표 3> 신장에 따른 졸업일 기준 취업 여부 차이

(단위: 명, %)

변수명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chi^2$ )
졸업일 기준 미취업	46 (63.9%)	223 (63.0%)	26 (34.7%)	21.38***
졸업일 기준 취업	26 (36.1%)	131 (37.0%)	49 (65.3%)	
N	72	354	75	

주: \*\*\*  $p<0.01$ , \*\*  $p<0.05$ , \*  $p<0.1$

이어 <표 4>는 신장의 상대적 범주에 따른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상대적 단신 집단에 속한 경우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 장신집단에 속할 경우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장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신장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 차이(로그 첫 일자리임금)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F-value)
로그 첫 일자리 임금	4.867 (0.294)	4.881 (0.327)	5.010 (0.525)	3.54**
N	57	304	60	

주: ( )는 표준편차

\*\*\*  $p<0.01$ , \*\*  $p<0.05$ , \*  $p<0.1$

<표 5>는 신장에 따른 팬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차이를 살펴본 결과인데, 상대적 단신 범주에 속할 경우 팬찮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최초 취업한 비율이 4.2%에 그친 반면 평균신장 범주에 속할 경우 9.6%에 달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장신에 속할 경우 팬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20.0%에 달해 평균신장 범주에 속한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상대적 단신 범주에 속한 경우에 비해서는 5배 가까이 높았다.

<표 5> 신장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차이

(단위: 명, %)

	상대적 단신	평균신장 범주	상대적 장신	검정통계량( $\chi^2$ )
미취업 또는 괜찮은 일자리 이외 취업	69 (95.8%)	320 (90.4%)	60 (80.0%)	10.68***
괜찮은 일자리 취업	3 (4.2%)	34 (9.6%)	15 (20.0%)	
N	72	354	75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 IV.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 1. 신장(height)에 따른 졸업 당시 취업여부 분석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신장에 따른 취업여부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학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항로짓(Binary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log\left(\frac{\pi_i}{1-\pi_i}\right) = \alpha + \beta_i(\text{가구특성}) + \gamma_i(\text{출신 고교 특성}) + \delta_i(\text{대학 특성}) \\ + \zeta_i(\text{대학생활}) + \eta_i(\text{신장관련 변수}) + \epsilon_i$$

<표 6>에는 대학 졸업 당시의 취업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신장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대학 졸업 당시의 취업여부를 동일한 종속변수로 하여 신장을 나타내는 변수를 달리한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I>에서는 *cm* 단위로 측정된 신장을 포함하였으며, 표본의 평균신장 이상인 경우(=1)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0)의 구분 더미(Dummy)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II>, 그리고 ‘상대적 장신’, ‘평균’, ‘상대적 단신’으로 신장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모형 III>을 통해

신장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 각 모형의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과 같은 가구특성과 출신 고등학교의 특성, 그리고 대학 및 대학 전공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재학 중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경험과 관련해 해외연수 경험과 재학 중 근로경험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 모형에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모형 I〉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 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졸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2.1배( $=e^{0.741}$ )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수를 경험한 이들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1년(이상)의 지연된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안준기·배호중, 2013)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서두르는 등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는 졸업, 취업, 혼인 등의 과정에서 연령규범을 좇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탐색기간을 줄인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대학순위나 전공에 따라서는 취업여부 그 자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해외연수 경험이나 재학 중 근로경험 변수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신장이 클수록 졸업 당시에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I〉과 동일한 통제변수와 함께 평균이상의 신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II〉에서는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값이 (+)의 방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상대적 장신/단신/평균과 같이 신장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III〉에서는 상대적 장신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기준변수인 평균범주 신장에 비해) 키가 큰 사람들이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1.08( $=e^{0.076}$ )배 가량 높았으며,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한 이들의

경우 평균신장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3.4배( $=e^{0.123}$ )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이행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되었던 가구특성 및 대학특성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의 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취업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이기에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6>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가구특성 및 출신고교 특성	상수항	-12.805***	3.510	13.309	-0.583	1.176	0.245	-0.539	1.209	0.199
	부모학력	0.062	0.045	1.921	0.057	0.044	1.670	0.072	0.046	2.500
	형제자매 유무	0.200	0.437	0.208	0.180	0.427	0.179	0.234	0.436	0.287
	자가주택 소유여부	0.168	0.227	0.543	0.196	0.223	0.769	0.181	0.229	0.622
	로그 가구소득	0.005	0.219	0.000	-0.001	0.216	0.000	-0.053	0.222	0.058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249	0.309	0.645	-0.233	0.306	0.582	-0.220	0.311	0.501
	출신고교(인문계=1)	-0.448*	0.266	2.832	-0.438*	0.261	2.828	-0.409	0.268	2.339
	재수경험	0.741***	0.263	7.916	0.711***	0.260	7.505	0.753***	0.264	8.105
대학특성 및 대학생활	대학순위: 1~10위	0.288	0.436	0.436	0.353	0.429	0.679	0.239	0.444	0.290
	대학순위: 11~20위	-0.247	0.412	0.359	-0.157	0.408	0.149	-0.271	0.421	0.415
	대학순위: 21~30위	-0.660*	0.342	3.719	-0.652*	0.336	3.776	-0.660*	0.341	3.750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인문	-0.560	0.390	2.060	-0.423	0.382	1.224	-0.493	0.391	1.589
	전공2: 사회	-0.627*	0.354	3.137	-0.500	0.346	2.089	-0.599*	0.352	2.906
	전공3: 교육	-0.526	0.453	1.349	-0.453	0.445	1.039	-0.605	0.456	1.758
	전공4: 자연	-0.506	0.385	1.727	-0.385	0.377	1.043	-0.546	0.386	2.004
	전공5: 의약	-0.367	0.567	0.420	-0.343	0.564	0.370	-0.360	0.571	0.399
	전공6: 예체능	-0.592	0.387	2.344	-0.450	0.378	1.418	-0.558	0.386	2.095
	전공7: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351	0.258	1.851	0.374	0.255	2.158	0.313	0.261	1.441
	재학 중 근로경험	-0.057	0.282	0.041	-0.053	0.277	0.036	-0.015	0.284	0.003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S.E$	Wald $\chi^2$	$\beta$	$S.E$	Wald $\chi^2$	$\beta$	$S.E$	Wald $\chi^2$
신장 관련 변수	신장(cm)	0.076***	0.020	14.019	-	-	-			
	평균신장 이상 여부				0.183	0.189	0.939			
	상대적 단신							-0.059	0.281	0.044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230***	0.277	19.726
AIC		679.938			693.756			674.877		
SIC		764.271			778.088			763.426		
-2log L		639.938			653.756			632.877		
Likelihood Ratio		38.701***			24.883			45.762***		
Score		37.025***			24.321			44.496***		
Wald		34.049*			22.973			40.242***		
N		501			501			501		

주: \*\*\* p<0.01, \*\* p<0.05, \* p<0.1

## 2. 신장(height)에 따른 팬찮은 일자리 취업여부 분석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리변수로 황여정·백병부(2008), 백병부·유백산(2011), 이필남·김경년(2012) 등의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과 같이 팬찮은 일자리(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취업)에 취업한 경우를 1로, 미취업<sup>6)</sup> 또는 팬찮은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0으로 하여 이항로짓(Binary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앞서 실시한 분석과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의 순위가 높을수록 팬찮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또는

6) 팬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미취업자까지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할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팬찮은 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7>의 분석결과와 계수값의 방향이나 유의도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팬찮은 일자리 취업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이 확인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체능계열을 전공한 경우 팬참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출신자에 비해 팬참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형 I〉에서 *cm* 단위로 측정된 신장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경우 키가 클수록 팬참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팬참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1.11 배( $=e^{0.110}$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도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한 분석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의 순위가 높을수록 팬참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며,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자에 비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또는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경우 팬참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과 관련해서는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평균신장 이상인 이들의 팬참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평균에 못미치는 정도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상의 신장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팬참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질 가능성이 2.23 배( $=e^{0.802}$ ) 높았다.

세 가지 범주로 신장을 나누어 살펴본 〈모형 II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배경 및 고교특성 그리고 대학특성 및 취업준비 경험 변수들의 계수값이나 통계적 유의도가 앞선 〈모형 I〉과 〈모형 II〉에서의 분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신장 관련 변수의 경우 ‘상대적 단신’ 변수는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본의 평균신장보다 1표준편차 이상 큰 사람들로 정의된 ‘상대적 장신’ 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기준변수인 평균범주의 신장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서 졸업 후 팬참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평균범주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3.12배( $=e^{1.137}$ )에 달했다.

<표 7> 괜찮은 일자리(=3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E</i>	Wald $\chi^2$	$\beta$	<i>S.E</i>	Wald $\chi^2$	$\beta$	<i>S.E</i>	Wald $\chi^2$
	상수항	-27.289***	6.846	15.888	-9.541***	2.595	13.519	-9.220***	2.592	12.651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0.058	0.083	0.478	-0.068	0.082	0.674	-0.045	0.085	0.289
	형제자매 유무	1.018	1.084	0.881	0.898	1.086	0.684	1.013	1.077	0.884
	자기주택 소유여부	-0.493	0.416	1.403	-0.433	0.412	1.106	-0.462	0.416	1.232
	로그 가구소득	1.098**	0.430	6.506	1.069**	0.428	6.229	1.016**	0.426	5.691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191	0.581	0.109	0.226	0.581	0.151	0.134	0.576	0.054
	출신고교(인문계=1)	0.901	0.778	1.343	0.855	0.778	1.209	0.958	0.777	1.521
	재수경험	-0.254	0.477	0.283	-0.298	0.478	0.388	-0.289	0.480	0.361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2.389***	0.521	20.990	2.432***	0.514	22.355	2.333***	0.526	19.658
	대학순위: 11~20위	2.299***	0.534	18.555	2.380***	0.533	19.917	2.243***	0.528	18.026
	대학순위: 21~30위	0.911*	0.540	2.842	0.842	0.533	2.497	0.880*	0.538	2.679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인문	-1.342**	0.637	4.433	-1.189*	0.621	3.663	-1.357**	0.633	4.596
	전공2: 사회	-1.244**	0.596	4.357	-1.152**	0.585	3.882	-1.264**	0.598	4.474
	전공3: 교육	0.370	0.670	0.306	0.436	0.660	0.437	0.227	0.673	0.114
	전공4: 자연	-1.959***	0.755	6.739	-1.775**	0.741	5.745	-2.123***	0.769	7.623
	전공5: 의약	0.951	0.738	1.660	1.019	0.739	1.902	0.733	0.734	0.998
	전공6: 예체능	-1.725**	0.747	5.328	-1.586**	0.735	4.662	-1.786**	0.756	5.581
	전공7: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480	0.398	1.450	0.484	0.399	1.472	0.456	0.398	1.309
	재학 중 근로경험	0.207	0.531	0.152	0.183	0.527	0.121	0.312	0.546	0.326
신장 관련 변수	신장( <i>cm</i> )	0.110***	0.037	8.734						
	평균신장 이상 여부				0.802**	0.365	4.823			
	상대적 단신							-0.822	0.680	1.464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137***	0.408	7.771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beta$	<i>S. E</i>	Wald $\chi^2$
AIC		283.764			287.810			284.553	
SIC		368.097			372.142			373.102	
-2 log L		243.764			247.810			242.553	
Likelihood Ratio		90.239***			86.194***			91.450***	
Score		104.935***			102.810***			106.714***	
Wald		62.587***			61.382***			64.205***	
N		501			501			501	

주 : \*\*\* p<0.01, \*\* p<0.05, \* p<0.1

### 3. 신장(height)에 따른 첫 일자리 소득수준 분석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은 도외시한 채 단순히 취업여부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기서는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을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아 임금 방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의 첫 일자리의 실질임금(월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 w_i$ )에 대해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들( $X_i$ )<sup>7)</sup>

7) 대학졸업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결정짓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가구특성 및 대학특성,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활동 변수 외에도 이들이 일을 하게 된 사업체의 규모나 속해있는 산업군, 노동조합 유무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도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의 규모나 산업특성, 노동조합 유무 등의 요인 그 자체가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둔과 동시에, 앞선 취업 여부를 둘러싼 요인과 동일한 모형을 통해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4년제 대졸 여학생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학재학 중 경험 등에 초점을 두고 대졸자의 임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규용·김용현, 2003; 채구목, 2007; 임다희·조일형·권기현, 2014)을 참조하여 사업체 특성과 같은 수요측 요인은 배제하고 노동시장 이행 전까지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과 함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 신장( $H_i$ ) 변수를 함께 포함시켜 임금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Mincer類의 임금방정식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ln w_i = \alpha + \beta X_i + \gamma H_i + \epsilon_i$$

여기서도 앞선 졸업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장의 영향력을 살피고자  $cm$  단위로 측정된 신장을 연속형 변수로 넣은 〈모형 I〉, 평균이상의 신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 II〉, 그리고 ‘상대적 장신’, ‘평균범주’, ‘상대적 단신’으로 신장을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을 살피기 위한 〈모형 III〉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모형 I〉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교 졸업 당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세칭 ‘명문대학’ 출신일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의약계열 졸업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학 중 해외연수 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신장( $cm$ )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장이 클수록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았다. 〈모형 I〉을 기준으로 했을 때  $cm$  단위로 측정된 신장에 대한 추정계수가 0.007로 신장이 1 $cm$  클수록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0.7%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신장 변수 대신 평균이상의 신장 여부에 따른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II〉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가 〈모형 I〉과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평균신장 이상 여부 변수의 경우 (+)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해당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8>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 (종속변수: 첫 일자리에서의 로그 월소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 E</i>	<i>Wald</i> $\chi^2$	$\beta$	<i>S. E</i>	<i>Wald</i> $\chi^2$	$\beta$	<i>S. E</i>	<i>Wald</i> $\chi^2$
	상수항	3.091***	0.598	5.170	4.262***	0.208	20.450	4.257***	0.207	20.550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부모학력	0.004	0.007	0.550	0.004	0.008	0.520	0.005	0.007	0.650
	형제자매 유무	0.030	0.075	0.400	0.030	0.075	0.390	0.040	0.075	0.540
	자가주택 소유여부	0.000	0.038	0.000	0.005	0.039	0.120	0.004	0.038	0.100
	로그 가구소득	0.078**	0.038	2.060	0.076**	0.038	2.010	0.072*	0.038	1.900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009	0.052	0.180	0.009	0.052	0.170	0.012	0.052	0.220
	출신고교(인문계=1)	0.074	0.047	1.560	0.071	0.048	1.490	0.079*	0.047	1.670
	재수경험	0.025	0.048	0.520	0.023	0.048	0.470	0.021	0.048	0.440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0.223***	0.075	2.960	0.229***	0.076	3.030	0.218***	0.075	2.890
	대학순위: 11~20위	0.192***	0.070	2.750	0.202***	0.070	2.880	0.193***	0.070	2.760
	대학순위: 21~30위	0.088	0.055	1.610	0.085	0.055	1.550	0.082	0.055	1.490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인문	-0.177***	0.068	-2.620	-0.168**	0.068	-2.480	-0.166**	0.068	-2.440
	전공2: 사회	-0.095	0.059	-1.600	-0.090	0.060	-1.500	-0.089	0.059	-1.510
	전공3: 교육	-0.069	0.078	-0.890	-0.067	0.079	-0.850	-0.074	0.078	-0.950
	전공4: 자연	-0.061	0.066	-0.920	-0.051	0.066	-0.770	-0.063	0.066	-0.950
	전공5: 의학	0.195**	0.096	2.030	0.199**	0.097	2.050	0.201**	0.097	2.080
	전공6: 예체능	-0.144**	0.067	-2.160	-0.133**	0.067	-1.990	-0.138**	0.066	-2.070
	전공7: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137***	0.046	2.970	0.143***	0.046	3.080	0.136***	0.046	2.950
	재학 중 근로경험	0.060	0.051	1.180	0.062	0.051	1.210	0.069	0.051	1.350
신장 관련 변수	신장( <i>cm</i> )	0.007**	0.003	2.120						
	평균신장 이상 여부				0.038	0.033	1.140			
	상대적 단신							0.011	0.049	0.220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0.126***	0.048	2.630
F Value		4.56***			4.36***			4.47***		
$R^2$		0.1778			0.1712			0.1827		
Adj. $R^2$		0.1388			0.1319			0.1418		
N		421			421			421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모형 III〉에서도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값이 앞선 두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 신장관련 변수를 보면 상대적 단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상대적 장신 변수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어 상대적 장신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은 기준변수인 평균 신장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 장신에 속하는 학생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기준으로 삼은 평균신장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12.6%가량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키가 큰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V. 결론

우리사회에서 키(height)는 개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자리에서는 키와 생산성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노동시장 성과와도 관련을 갖는 요인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장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신호기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과정에서의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기노동시장 이행과정 성과가 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신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신장을 다양한 기준을 이용해 나누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

으로 이행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동갑내기 여학생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입직가능성에 키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가 클수록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 취업가능성, 팬찮은 일자리 취업가능성 그리고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과 같은 성과가 양호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1.08배가량 높았으며,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한 이들의 경우 평균범주의 신장을 가진 이들에 비해 해당시점에서의 취업가능성 또한 3.4배가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팬찮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갖게 될 가능성에 있어서도 신장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장이 1cm 증가할 때마다 팬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1.11배 높아졌다. 신장의 범주에 따라서는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팬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평균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해당 일자리 취업 가능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첫 일자리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장이 1cm 클수록 소득이 0.7%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신장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해 약간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신규 입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임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큰 여성만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신장 프리미엄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상대적 장신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평균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비해 12.6%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을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범주화 한 신장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은 키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큰 키에 대한 프리미엄의 형태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신장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하는 이들의 경우 그들의 능력이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기제가 다양하지 않아 그들의 능력이나 생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장이나 외모와 같은 요인들을 통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능력이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구직자들에게 구직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준비나 불안감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이는 단순히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넘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중심,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식개선 노력 및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은 대부분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는 관련없는 요인들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개인 차원의 불행을 넘어 직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욕저하로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해당항목에 대한 또 하나의 치열한 ‘스펙 경쟁’<sup>8)</sup>이 일어나게

8) 이러한 스펙 관리는 개인 차원의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학습을 일정한 방향과 패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취업준비자들은 토익, 토플, 각종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 등 영어능력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같은 제2외국어나 한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 봉사활동, 공모전 경험이 중요한 스펙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참여율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에 관련된 동아리나 활동 안내 글을 대학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대학생들의 휴학이 보편화되고 평균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학습에 있어서 스펙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한국일보, 2009. 7. 30; 장성연, 2012에서 재인용).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의학적, 과학적 전문지식과 상품이 대중화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키는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박소연, 2011) 하에서 신장 프리미엄의 존재는 큰 키를 타고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신체불만족과 우울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을 구직자에게 묻는 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채용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고통받는 구직자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로자가 채용되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임종률, 2004; 박귀천, 2007에서 재인용).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부당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같은 논의들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존의 관행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체의 인식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시장에서의 신장의 영향력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교육고용패널 자료에서의 신장이 실제로 계측된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self-reported)한 것으로 응답자의 신체를 직접 계측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취업한 일자리 특성(예컨대 직무에 필요한 기준 신장이 정해진 직업과 같이 큰 키를 요하는 직업) 등은 보다 상세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이항로짓분석과 같은 방법론이 ‘인과관계’를 단언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은 아니기에 키를 둘러싼 효과성이나 차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자료 및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편견과 차별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적 성과차이는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또는 차이에 대한 이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분석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고용주 및 구직자의 심리적 요인 등까지도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차이에 요인에 대한 분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편견과 차별해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로 인해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남학생들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나 좀 더 오랜 기간 자료가 축적된 후 남학생들까지도 포함시킨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보다 높은 연구결과 및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장 프리미엄의 경우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것이 더욱 크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신장 프리미엄은 직업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고객 대면 응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같은 직업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성별로 직업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취업자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30.1%)로 남성(1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통계청, 2017) 여성이 신장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남성 및 다양한 연령,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을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2015).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http://sizekorea.kats.go.kr/02\\_data/outline.asp](http://sizekorea.kats.go.kr/02_data/outline.asp)에서 2017.6.19.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고용정책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5&efYd=20150327#0000>에서 2017. 6. 19. 인출.
- 국회뉴스ON(2017.6.27.). “[이슈법안] 이력서에 키·몸무게 적어야 합니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6/27/5ab05a35-cecb-452a-ba24-07a2158fd60c.html>에서 2017.7.4.인출.
- 김미진·노영일·양은석·문경래·박상기·박영봉·김은영(2004). “소아의 키에 대한 인식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제47권 제3호 258-263.
- 김성훈(2011).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한국교육학 연구. 제17권 제2호 5-26.
- 김안국(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직장이동과 전공직종일치 분석”. 노동 경제논집. 제29권 제1호 153-184.
- 김용민·김용학·박기성(2012). “외모와 신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제14권 제1호. 1-22.
- 김용민·임희정·박기성(2012). “신장과 비만의 임금효과-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7-36.
- 김진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1-72.
- 김홍균·문혜영(2007).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공공 경제. 제12권 제1호 161-178.
- 김희삼(2010).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이삼호(2007).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서울: 한국 개발연구원.
- 남기곤(200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임금 효과”. 경제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143-169.

-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143-172.
- 박가열·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3권 제1호, 29-59.
- 박귀천(2007). “근로자 채용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제한”. 노동법연구. 제23권, 89-128.
- 박귀천·장명선·이소라·이수연·강을영(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박기성·이인재(2010).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3호, 129-149.
-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9-50.
- 박소연(2011).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키 담론 연구; 키 소수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117-139.
- 박환보(2011).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1-25.
- 백병부·유백산(2011). “편입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3호, 99-117.
- 변금선(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 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8권 제1호, 129-161.
- 안준기(2009). “어학연수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3-231.
- 안준기·배호중(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4호, 149-180.
- \_\_\_\_\_ (2013). “재수경험이 취업준비 및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1호, 25-51.

- 여성신문(2017a). “키·몸무게 얼마? 부모님 직업은?… 아직도 개인정보 묻는 대기업들”(2017.7.17.일자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115731에서 2017.8.14. 인출.
- \_\_\_\_\_(2017b). “기업맞춤형 외모 있다?...‘취업 성형 고민 중’(2017.1.25.일자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111364에서 2017.7.4. 인출.
- 오진아(2011). “일 병원에 내원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어머니의 키에 대한 인식과 자녀 키성장 증진행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5권 제1호 60-70.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87-118.
- 오호영·김승보·정재호(2006). 대학서열화와 기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광호·안준기·황성수(2010).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121-150.
- 유경준·황수경(2005).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윤수경·한유경. (2014). “대학생의 취업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131-160.
- 이규용·김용현(2003). “대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69-94.
- 이병희(2003). “재학 중 근로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1-22.
- 이필남·김경년(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7-233.
- 임다희·조일형·권기현(2014). “대출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금 및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3호 529-554.
- 임종률(2004). 노동법(제4판). 서울: 박영사.
- 임희정(2012). 신장과 비만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성연(2013).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출신 대기업 입사자들의 스펙쌓기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민자·윤경림·심계식(2008). “소아의 체격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사회성 및 행동특성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제51권 제10호 1052-1057.

-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0).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53-78.
-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파주: 법문사.
- 조현국(2014). “Height and Labor Market Outcome : Evidence from Panel Data”. 노동경제논집, 제37권 제2호, 79-103.
- 중앙일보(2005). 중앙일보 대학평가(<http://univ.joongang.co.kr/>)
-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2007).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해설.”<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Link.jsp?fid=51&cid=9838&ctype=1>에서 2017.6.19. 인출.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제59권 제4호, 35-61.
- 채널A(2017.5.22.). “키·몸무게·전신사진 필수... 취업도 외모순?”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038557](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038557)에서 2017.7.4. 인출.
- 채창균(2004). “실업계 고교 교육은 성공적인가?- 단기 노동시장 성과의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59-74.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 연구. 제28권 제2호, 89-107.
-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직업별 취업자.”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17.12.4. 인출.
- 한국일보(2009.7.30.). “대학 휴학생 1년새 13% 급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11차(2014)년도 조사 사용자지침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경·박미정(2009). “대학병원 성장 클리닉을 내원한 아동에서 설문 조사를 통한 키성장 관리 실태분석”. 소아청소년과학. 제52권 제5호, 576-580.
- 헤럴드경제(2017.4.6.). “[취업전쟁, 청년은 읍니다①] ‘그 몸매로 디자이너 못해’... 의류업계선 ‘외모’도 실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6000113>에서 2017.7.4. 인출.

- 황여정·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 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1-23.
- ABC News(2009.11.16.). “Korean Children Under ‘Growing’ Pressure.”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korean-children-pressured-grow-tall/story?id=9074703>에서 2017.6.19. 인출.
- Arrow, K.(1972). “Models of Job Discrimination”, in Anthony H. Pascal ed., *Racial Discrimination in Economic Life*, Lexington : Lexington Books.
- Becker, G. S.(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4).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Blaker, N., Rompa, I., Dessing, I., Vriend, A., Herschberg, C., & Vugt, M.(2013), The height leadership advantage in men and women : Testing evolutionary psychology predictions about the perceptions of tall leader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6(1). 17-27.
- Case, A., & Paxson, C. (2008). Stature and status : height, ability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116(3). 499-532.
- Charraud, A., & Valdelièvre, H.(1981). La taille et le poids des Français, *Economie et statistique*. 132(1). 23-38.
- Deaton, A., & Arora, R.(2009). Life at the top: The benefits of height. *Economics and Human Biology*. 7(2). 133-136.
- Häkkinen, I.(2006). Working while enrolled in a university: does it pay?. *Labour Economics*. 13(2). 167-189.
- Heineck, G.(2005), Up in the Skies?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Height and Earnings in Germany. *LABOUR*. 19(3). 469-489.
- Herpin, N.(2005). Love, careers, and heights in France, 2001. *Economics & Human Biology*. 3(3). 420-449.

- Herpin, N.(2008). 키는 권력이다. 김계영(역). 서울: 현실문화.
- Kortt, M. & Leigh, A.(2010). Does size matter in Australia?. *Economic Record*. 86(No.272). 71-83.
-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ettle, D.(2002). Height and reproductive success in a cohort of british men. *Human Nature*. 13(4). 473-493.
- New York Times(2009.12.22.). “South Korea Stretches Standards for Success.” <http://www.nytimes.com/2009/12/23/world/asia/23seoul.html>에서 2017.6.19. 인출.
- Persico, N., Postlewaite, A., & Silverman, D.(2004). The effect of adolescent experience on labor market outcomes : The case of he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5). 1019-1053.
- Phelps, E. S.(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2(4). 659~661.
- Salska, I., Frederick, D. A., Pawlowski, B., Reilly, A. H., Laird, K. T., & Rudd, N. A.(2008). Conditional mate preferences: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s for heigh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203-215.
- Stulp, G., & Barrett, L.(2014).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human height variation. *Biological Reviews*. 91(1). 206-234.
- Yancey, G., & Emerson, M. O.(2014). Does height matter? An examination of height preferences in romantic coupling. *Journal of Family Issues*. 37(1). 53-73.



<부표 1>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관찰은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변수명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S.E$	Wald $\chi^2$	$\beta$	$S.E$	Wald $\chi^2$	$\beta$	$S.E$	Wald $\chi^2$
가구 특성 및 출신 고교 특성	상수항	-30.338***	7.475	16.471	-9.468***	2.654	12.723	-9.269***	2.641	12.319
	부모학력	-0.024	0.086	0.075	-0.035	0.085	0.167	-0.010	0.087	0.013
	형제자매 유무	1.187	1.101	1.164	1.003	1.097	0.836	1.176	1.096	1.151
	자가주택 소유여부	-0.375	0.425	0.779	-0.296	0.418	0.502	-0.323	0.424	0.580
	로그 가구소득	1.024**	0.430	5.671	0.979**	0.429	5.220	0.916**	0.424	4.653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광역시=1)	0.368	0.590	0.389	0.364	0.591	0.380	0.284	0.586	0.235
	출신고교(인문계=1)	0.722	0.794	0.828	0.667	0.790	0.714	0.798	0.792	1.014
	재수경험	-0.137	0.494	0.076	-0.201	0.498	0.162	-0.205	0.497	0.171
대학 특성 및 대학 생활	대학순위: 1~10위	2.473***	0.561	19.436	2.489***	0.545	20.871	2.413***	0.567	18.096
	대학순위: 11~20위	2.159***	0.548	15.545	2.271***	0.543	17.501	2.111***	0.544	15.080
	대학순위: 21~30위	0.887	0.549	2.610	0.788	0.539	2.139	0.830	0.545	2.317
	대학순위: 기타	-	-	-	-	-	-	-	-	-
	전공1: 인문	-1.164*	0.655	3.158	-1.044*	0.639	2.667	-1.146*	0.648	3.122
	전공2: 사회	-1.272**	0.609	4.360	-1.174**	0.596	3.880	-1.268**	0.609	4.336
	전공3: 교육	0.475	0.688	0.476	0.487	0.674	0.522	0.341	0.686	0.247
	전공4: 자연	-1.356*	0.759	3.193	-1.138	0.740	2.363	-1.523**	0.774	3.866
	전공5: 의약	0.896	0.770	1.354	0.922	0.760	1.472	0.667	0.765	0.760
	전공6: 예체능	-1.694**	0.762	4.939	-1.486**	0.742	4.009	-1.744**	0.772	5.108
	전공7: 공학	-	-	-	-	-	-	-	-	-
	해외연수 경험	0.417	0.414	1.017	0.490	0.411	1.421	0.404	0.415	0.945
	재학 중 근로경험	0.208	0.552	0.142	0.183	0.543	0.114	0.321	0.566	0.321
	신장(cm)	0.128***	0.041	9.797						
신장 관련 변수	평균신장 이상 여부				0.755**	0.374	4.062			
	상대적 단신							-0.781	0.698	1.253
	평균신장 범주							-	-	-
	상대적 장신							1.312**	0.433	9.198
AIC		268.358			274.559			269.506		
SIC		349.211			355.411			354.401		
-2log L		228.358			234.559			227.506		
Likelihood Ratio		86.441***			80.241***			87.296***		
Score		97.480***			93.812***			99.923***		
Wald		59.177***			57.780***			60.907***		
N		421			421			421		

주: \*\*\* p<0.01, \*\* p<0.05, \* p<0.1

Abstract

## Height Premium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 Focusing on Female University Graduates

Ho-Joong, Bae\* · Jung-Wook, Kim\*\*

It can be said that the number of jobs that directly associate 'height' with 'productivity' h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progress of mechanization and automation reduced the dependence on the human body. Nevertheless, height is still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a labor market. The young are put under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appearance and height are considered factors that enable young job-hunting people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s and that can sometimes make job seekers held in suspense.

As height is now considered a kind of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eight premium in a labor market. For this purpose,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as used to analyze height premium for female university graduates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analysis confirmed that height premium worked in the possibility of being employed, in the wage level, and in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decent job and mainly had the form of premium for being tall rather than disadvantages to being small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used representative statistical data to make a multilater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eight in a labor market, which had rarely been addressed empirically.

**Keywords** : Height premium, wage at the first job,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

\* First Author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